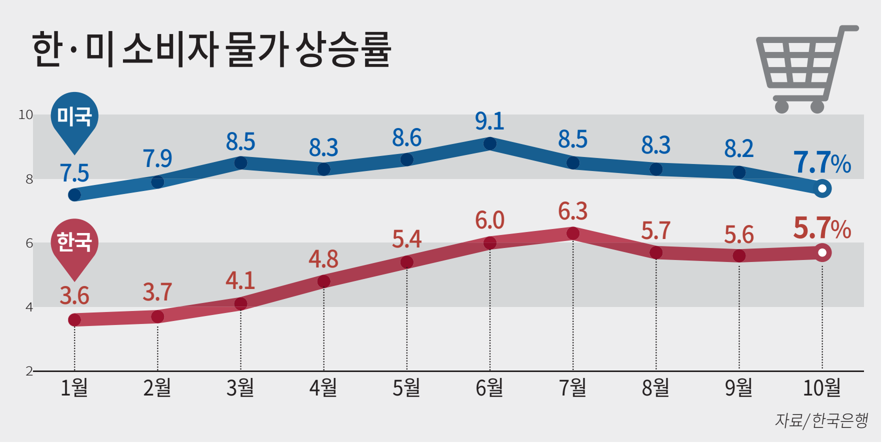
美 금리 인상 속도조절 시사… 한은도 '베이비스텝' 무게

미국 소비자물가 7%대로 떨어져
韓, 지난 7월 정점 이후 5%대 지속
환율도 한달새 100원 넘게 내려가
24일 금통위서 0.25%p 인상 예상



한국은행이 이달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400원대를 웃돌던 원·달러 환율도 1320원대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조절할 전망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까지 상승한 이후 5%대를 지속하고 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물가 정점 통과…"금리인상 속도 늦출 것"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하락세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상승했지만, 시장전문가 전망치(7.9%)를 밑돌았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9.1%로 정점을 찍은 뒤 7월부터 9월까지 8%대를 이어가다 10월 7%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도 기준금리의 인상속도를 늦출 전망이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Fed 부의장은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의 금리인상과 양적긴축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느린 속도로 금리인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폭은 0.5%p로 관측된다. Fed의 금리인상폭을 가늠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0.5%p 올릴 확률은 83%다. 반면 0.75%p 금리 인상 가능성은 17%다. 기준 금리를 5번 연속 0.75%p 인상하는 대신 금리 인상에 따른 데이터를 보면서 인상폭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한은, 11월과 내년 1월 0.25%p 금리 인상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조절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3%로 미국의 기준금리(3.75%~4%)보다 1%p 낮다. 당초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며 11월에도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3%로 올린 직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종 기준금리가 3.5% 수준일 것이라는 시장 예상은 금통위 위원 다수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한국은행의 기조도 달라졌다.

이 총재는 "긴축적 통화기조를 유지해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여전히 한국은행의 우선 과제"라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은 이어가겠지만, 인상폭은 줄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기조에는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도 한 몫했다. 지난달 1439.8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환율은 한달새 100원 넘게 내려갔다.

전문가들은 이달 금통위에서 0.25%p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주부터 원·달러 환율은 1410원에서 1310원대로 급락했고 미국 10월 물가 지표를 계기로 연준의 12월 0.5%p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다"며 "최근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11월 금통위에서 한은도 금리를 0.25%p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내년에도 0.25%p씩 추가로 금리를 올려 최종 금리는 3.75%로 예상한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청년 5명 중 1명 실업자… 대졸자도 배달·건설현장 등 임시직 몰린다

〈16~24세〉

차이나 뉴스&리포트

6~9월 도시근로자 실업률 5.4%
청년실업률 19%로 4배 가량 높아

코로나에 경기침체·기업규제 겹쳐
일자리 줄어들고 구직자는 급증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앞에서 택배원들이 물건을 싣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대졸자들도 배달 기사와 건설 노동자 등 임시직을 선택하고 있다. /AP·뉴시스

중국에서 실업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 5명 중 한 명은 일을 구하지 못하는 등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치솟으면서 대졸자들도 배달기사나 건설 노동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격한 방역 정책에 따른 봉쇄 등으로 이미 수백만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고, 침체된 경기에 대규모의 정리 해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6~9월 도시 근로자 실업률은 5.4%다. 16~24세의 청년 실업률은 19%로 4배 가까이 뛰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노동시장에 3개월 이상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일부 그룹이 제외됐음을 감안하면 실제 실업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고용한파는 늘어난 수요와 부족한 공급이 맞물리면서다.

먼저 일자리를 찾는 수요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올해 약 1600만명이 도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대졸자만 1076만명으로 전년 대비 167만명이나 늘었다. 전체 대졸자 수와 전년 대비 증가율 모두 사상 최대치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정책과 경기침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일자리 공급은 큰 폭으로 줄었다. 국가시장규제총국에 따르면 중국에서 작년에만 기업과 자영업자, 파트너십 등 총 1320만곳이 등록을 취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급증했다.

이와 함께 빅테크 기업들은 독점 규제로 막대한 벌금을 물고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부문 역시 유동성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교육 부문은 사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로 기업들이 거의 전멸했다.

지난달 중국고용연구소와 일자리 플랫폼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구직자는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1.3% 급증했지만 기업들의 수요는 오히려 12.2% 감소했다.

청년 구직자들은 이미 눈높이를 낮춘 상태다.

일자리 플랫폼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졸자들의 월급 목표는 약 6295위안(약 118만원)으로 작년보다 6% 낮아졌다.

대졸자 등 일부는 건설 노동자나 배달 기사, 라이브 스트리머 등 임시직으로 몰리기도 했다. 중국에서 이런 유연한 형태의 고용인구만 2억명을 넘어섰고, 차이신 추산에 따르면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4%, 노동 인구의 27%에 달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03%p 하락

금감원, 9월 말 연체율 현황
연체율 0.21%… 연체채권 정리 영향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3%포인트(p) 하락했다. 은행이 분기 말을 대비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면서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전월보다 1조원 증가한 영향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0.24%) 대비 0.03%p 내렸다.지난 6월 사상 최저치(0.20%)에 가까운 수치다.

9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1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했지만,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원 늘어난 1조7000억원에 달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월말(0.27%) 대비 0.04% 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말보다 0.07%p 내렸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0.27%로 같은 기간 0.03%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19%로 한달전에 비해 0.01%p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0.12%로 전월과 유사했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이 한달전에 비해 0.05%p 떨어진 0.37%를 기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가수 임영웅·장민호 등 앞세워 '마케팅 효과' 톡톡

›› 1면 '고령화에 변화하는'서 계속

이마트는 매월 마지막주에 정기 할인 행사로 '시니어 위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성인용 패드·언더웨어 등의 위생용품부터 물티슈·염모제 등 시니어 용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시니어 케어 전문 매장도 늘리는 추세다. 올해 1월 가든파이브점과 죽전점에 시니어 케어 전문 매장을 열었으며, 향후에도 매장 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부머쇼퍼의 구매 단가가 높다보니 이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연예인을 앞세워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도 있다.

편의점 예약 구매 어플. /BGF리테일

세정의 패션 편집숍 '웰메이드'는 가수 임영웅을 전속모델로 발탁해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실제로 코로나19로 패션업계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2020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상승한 매출액을 기록했다.

웰메이드의 성장에 따라 세정그룹 전체 매출도 상승세다. 세정그룹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0% 상승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적자를 기록했던 세정그룹은 지난해 영업이익 26억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다.

일동후디스는 단백질 제품 '하이뮨'의 모델로 트로트 가수 장민호를 발탁, 3년째 함께 하고 있다. 제품력도 좋지만, 5060 세대에게 인기 있는 장민호를 기용함으로써 하이뮨 판매량도 급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